

I. 검토배경

-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이되면서 금융부문에서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물부문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
 -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글로벌 경기의 둔화가 국내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, 실물부문 위축이 다시금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
 -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기침체 심화와 신용경색 지속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

- 정부는 신용경색완화 여부가 경기침체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,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,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태임
 - 신용경색으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역할 확대, 은행 자본확충을 통한 신용공급 확대, 직접금융시장 회복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
 - 기존의 신용경색완화 방안은 은행의 기업여신능력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, 은행이 신용공급을 확대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
 - 은행대출에 따른 신용위험(거래상대방위험)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신용경색완화 방안으로부터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

- 본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경기침체 심화에 따라 신용위험(거래상대방위험)이 더욱 증가할 것에 예상되는 상황에서,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효

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

- 우선 II장에서 금융부문, 기업부문, 가계부문, 정부부문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위기심화 가능성을 진단함
- 다음으로 III장에서 단기적인 현안 과제로서 효과적인 신용경색완화 방안을 제안함
- 끝으로 IV장에서 장기과제로서 향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검토함